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

丁 淳 睦*

〈目 次〉

- | | |
|----------------|----------------|
| 1. 머리글 | 3. 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 |
| 2. 臺灣에서의 退溪學研究 | 4. 맺는글 |

1. 머 리 글

退溪의 「聖學十圖」가 中國에 알려진 것은 聖節使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던 西厓 柳成龍에 의하여서이다.¹⁾ 이 때 퇴계 69세로서 易箒 한 해 전이었다.

《艮齋集》에는 洪天民(1526~1594 이조판서를 지냄)이 南京에서 듣고온 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²⁾

「중국의 문사들이 <十圖>를 읽고 종일 완색하면서 말하기를, 동국에서도 이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의 학문은 程朱와 다름이 없다.」

홍천민은 牛溪의 문인으로서 언제 중국에 다녀왔는지는 상고할 수 없으나 「十圖」를 가지고 가서 江南士類와 교류하였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퇴계가 <十圖>를 완성한 직후의 무렵이라고 짐작된다.

舊韓이 망하자, 많은 애국지사들이 東三省(北滿) 일대로 망명하였으며 孔敎運動에 헌신하는 한편, 韓溪 李承熙, 眞菴 李炳憲, 陶庵 丁敦燮 등은 孔廟에 拜謁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한 논문을 曲阜·闕里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³⁾ <陶庵日記>에 의하면 이 때 陶庵은 「退溪集」과 「愚潭集」을 <孔府>에 헌증하였다.

그리고 그는 尙德學校에서 <聖學十圖>를 製屏한 것을 가지고 일시 귀국하였다.⁴⁾ 이 때 (丁卯 1927) 陶山 宗中에서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誤謬處에 대한 정오표를 발송하였다.⁵⁾

* 嶺南大 教授

1) 이에 대한 것은 權五鳳, 「聖學十圖의 中國頒傳」, 《韓國의 哲學》(第17輯),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89, pp.161~172. 참조

2) 丁淳睦 편, 《退溪正傳》, 지식산업사, 1991, p.518.

3) 丁淳睦, 「韓末志士訪曲阜和在韓孔敎運動」, 北京:《孔子誕辰 2540周年紀念學術論文集Ⅱ》, 1989.10, pp.145~148.

4) 이 병풍의 序跋의 贊詩는 지금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대로 黎元洪(中華之所以異於夷狄 人類之所以異於禽獸)과 梁啓超(巍巍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理訣 百世詔人心 雲谷琴書潤 廉溪風月尋 聲教三百載 萬國乃同欽)가 지은 것이다.

5) 李中均, 《東田潛士遺稿》卷七, 「答中華尙德學校 中」.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이 退溪學의 中國紹介에 대한 一端이다. 그러나 앞으로 韓中學術交涉史의 체계가 잡히고 자료가 많이 발굴·정리될 것이므로 중국인사들의 퇴계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은 지금보다는 더 넓어질 것이고 그 수용의 등고선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華夷論의世界觀과 文明觀에 투철하였던 당시의 중국학자들이 퇴계를 크게 <尊崇>하였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점은 70년대 초까지 대만 학자들이 「退溪學」에서의 「學」자에 대한 저항을 은연중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때의 양명학은 정신사의 흐름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렬한 文化磁場에서 보다 미약한 곳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中華人士」들이 끝까지 退溪學을 朱子 亞流學으로 묶어두려는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先代學者들은 中日 양국에 대한 태도에서 중국은 무조건 선진시하고 일본은 까닭없이 야만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퇴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은 은연중 나타난다. 즉, 퇴계학의 중국전류(傳流)는 일종의 ‘파천황의 기적’인듯 화제로 삼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것은 퇴계학의 수준을 너무 변경적인 것으로 제한시키려는 지적 사대주의의 결과이다. 퇴계학의 수준은 그가 재세할 무렵에 벌써 세계적 정상수준이었다. 주희가 물한 후 3백년 동안, 중국 학술계의 연구 성과는 퇴계와 같은 제1류의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경지였으며, 당시의 사상계를 풍미하던 陽明學의 학적 체계 역시 醇正哲學과는 거리가 먼 선험적이고 고유한 봉건도덕관념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의 양명학은 인간의 신비체험(靈明)으로써 알 수 있는 일종의 「공담허정」(空談虛靜)이다.⁶⁾ 퇴계의 제자인 西崖가 그곳의 대학생들에게 변론한 것 역시 「학문범주체계론」에서의 정밀성과 포괄성을 논한 웅변이었고 이것은 당시 퇴계학단이 지닌 높은 학문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퇴계학이 중국 학술계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재유전(再流傳)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1970년 <퇴계학연구원>이 창설된 후, 10여년의 노력 끝에 1979년 11월에 臺灣師範大學主催로 열린 「제4차 퇴계학국제학술회의」를 기점으로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정리코자 하는 것은 불과 12~3년의 퇴계학연구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대만이나 중국 학자들의 학문적 「수요」에서라기 보다는 우리측의 「권유」나 「배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퇴계학의 국제적인 학문적 관심이 단순히 퇴계학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의 「의도적,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적인 퇴계학연구의 도화선이 일본·대만·중국에서 불붙기 시작하자 이제는 오히려 몰려드는 국제퇴계학연구인원의 「정리」와 「배분」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할 정도로 퇴계학연구의 지평은 확대·심화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퇴계학의 학문적 성격이 이 시대의 정신적 갈급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철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

6)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文音社, 1990, p.102.

도 그것이 국지성을 면하려면, 국가역량에 상응하는 「宣揚作業」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세익스피어'를 위하여 인도라는 보고(寶庫)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부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칸트철학이나 괴테문학을 위하여 겐만민족의 모든 자존심을 바쳐 애호하고 선전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세익스피어가 될 수 있었으며, 칸트와 괴테가 될 수 있었다. 퇴계학의 국제적인 선양에 헌신하다가 타계한 春谷 李東俊 옹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개최된 퇴계학국제학술회의석상에서 "독일이 칸트철학을 가진 것을 자랑하여온 것처럼 이제 한국민도 퇴계철학을 지니고 있음을 세계의 사상계에 자랑하게 되었다"고 감격적으로 말한 것이 회상된다. 퇴계학의 세계학계로의 진입은 '퇴계학 자체'의 학문적인 인정이 선행되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인정'을 가능케한 후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었던 까닭이며 이같은 현상은 일본의 경우와 다른 나라(예컨대 이곳에서는 대만과 중국)와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퇴계학연구는 거의 자생적인 계파연원을 가지고 수삼백년 동안 계속되어온 것으로써 이는 그들의 학문적 수요(필요)로 보아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대만이나 중국에서의 퇴계학 수입은 몇가지 현실적 요청을 제외한다면, 불요불급한 域外の 「朱子學의 한 갈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2. 臺灣에서의 退溪學研究

대만의 유학생 蔡茂松이 '58년에 成均館大學에 유학을 오고(政治學科), 계속하여 동 대학원에서 한국유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碩・博士과정을 마쳤다. 그리하여 '71년에 「退・栗性理學의 比較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 논문은 퇴계학에 관한 박사논문으로는 국내외로 제1호이다. 그는 返國하여 國立成功大學 歷史學系 教授로 있으면서, 「退溪主敬과 栗谷主誠의 理學的特色」(1979. 臺北 제4회 퇴계학 국제회의 발표논문)을 비롯하여 한국성리학 연구로 2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蔡교수에 의하여 起端을 본 臺灣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그러나 매우 적막한 것이었다. 그의 한국유학, 그 중에서도 퇴계와 율곡에 대한 관심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지도교수(柳承國교수)의 권유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一花天下春」이라 하였듯이 蔡교수의 先河的인 작업은 뒤이어 전개될 대만 퇴계학연구의 기반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는 지금도 한국유학의 연찬과 弘場사업에 정력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중이다.

蔡茂松은 그 뒤 75년에 「朱子性情論及李退溪四端七情說研析」을 《退溪學報》(8)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후 韓臺간의 퇴계학교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가 1979년에 鄭飛石이 지은 《李退溪小傳》이 성균관대학의 丁範鎭교수와 臺灣大學의 陳祝三교수의 共譯으로 國立臺灣師範大學 내의 「退溪學研究會」에서 간행되었다. 한편 臺灣(香港)측에서는 巨儒 錢穆이 내한하여 기념강연을 하는 한편 陶山書院을 참배하였으며 귀국한 뒤로

《退溪全書》를 탐독하고 쓴 논문인 <朱子學의 韓國傳播考>가 《退溪學報》(5,6,11,13호)에 4회 연재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錢穆은 퇴계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내한한 孔成(孔子 75代孫 衍聖公·中國考試院長)이 陶山書院院長으로 行公함으로써 韓台간의 퇴계학교류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또 李家源, 李東俊 제씨가 訪台하여 <孔孟學會>의 陳立夫와 交遊하면서 대만학술사상계의 3元老인 錢穆·孔德成·陳立夫와 퇴계학연구원 측과의 유대는 일층 긴밀해졌던 것이다.

'79년의 <제4회 퇴계학국제학술회의> 이전까지의 「중화민국」 학자들의 퇴계학연구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 蔡茂松, 「朱子性情論與李退溪四端七情說」
- 錢 穆, 「現代에 있어서의 退溪學에 대한 再認識」, 《韓國의 哲學》, 4, 慶北大退溪研究所, 1976. 5.
- 黃錦鉉, 「朱子와 退溪의 實踐涵養에 대한 努力」, 《韓國의 哲學》(6), 慶北退溪研究所, 1977.6.
- 何佑森, 「朱子學與近世思想」, 《退溪學報》14, 1977.7.
- 蔡茂松, 「朱子學과 李退溪」, 《퇴계학보》
- 宋 晞, 「退溪의 理氣說에 대한 發揮」, 《退溪學報》, 19, 1978.10.
- 杜維明(在美學者), 「李退溪의 心性論」, 《退溪學報》, 19, 1978.10.
- 王 甦, 「退溪의 詩學과 詩教」, 《退溪學報》19, 1978.10.⁷⁾
- 周 何, 「李退溪의 禮學」, 《退溪學報》19, 1978.10.
- 王 甦, 「退溪詩學」(一)~(六), 《退溪學報》20, 21, 22, 23, 24, 25(1978.12~80.3).

제4회 退溪學國際會議의 主題는 「近世儒學與退溪學」이었다.(’79.11.11~14)대회의 고문으로는 陳立夫(總統府 資政), 張其昀(中國文化大學 創設者)·孔德成(臺灣大 教授), 郭爲藩(臺灣師大 校長)등이었고 周何교수가 준비위원장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총25편의 論文이 韓中日 3국 학자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臺灣학자의 退溪學 관계 논제는 다음과 같았다.⁸⁾

- 戴璉璋, 「朱子與退溪의 窮理思想」.
- 王 甦(淡江大 教授), 「退溪의 心學」
- 蔡茂松(成功大 教授), 「退溪主敬與栗谷主誠의 理學特色」
- 邱燮友, 「退溪詩의 理趣」
- 黃慶萱, 「退溪 栗谷 理氣說較論」

7) 王甦교수(臺灣, 淡江大)의 《退溪詩學》은 李章佑교수(嶺南大)의 名譯으로 1981년에 退溪學研究院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국판 254쪽) 1985년에는 「제1회 퇴계학학술상」을 韓·日 양국 교수와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8) 臺灣學者の 논문 발표는 총12편이었으나 이상 5편만이 퇴계학 논문이고 나머지 7편은 中國儒家思想에 관한 것이었다.

「퇴계학」의 중국 측의 「승인」(퇴계학국제회의의 대만개최문제)은 찬반·양론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인」(곧 대회의유치)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하여 周何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會議論文集》, 「前記」)

첫째로, 중국의 근세유학(宋元明理學)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퇴계학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한국의 학술사상계에 끼친 李退溪의 영향은 막중한 것으로서 그는 실로 주자학의 發揚과 展開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퇴계학의 중국소개는 「學術統緒」의 연원적 고찰을 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中韓文化交流가 근래에 <中斷>된 형편인데 이는 동북아국가 간의 「文化一脈」으로 보아 다시 접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는 더욱 이러한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周何會長의 견해는 이른바 「儒學宗主國」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진술하게 설명하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郭爲藩師大校長은 歡迎辭에서 「이곳(中華民國)에서 퇴계학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국제학술문화의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韓·中·日은 같은 전통적 유교국가의 人文思想을 갖고 현대사회의 위기와 價值淪喪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4회 퇴계학국제회의를 전후하여 「퇴계학회」가 결성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退溪學會」이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顧問：陳立夫, 張其昀, 孔德成, 郭爲藩, 林 尹(臺灣師大 教授), 高 明(政治大 教授), 潘中規(文化學院 教授), 潘維和(文化學院 院長)

會長：周何

常務理事：李先金(臺灣師大 研究所長), 羅宗海(政治大 教授), 宗 晞(文化學院 教授), 黃金鉦(師大 教授)

理事：王甦教授 外 20名

候補理事：林秋山 外 9名

會員：張存武(中央研究院 研究員) 外 50名

80년대 이후 대만학자의 퇴계학 연구업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 王 甦, 「退溪之心學」, 臺北, 《孔孟月報》209, 1980.
- 王 甦, 「退溪早年的幾首七絕」, 臺北, 《中國文學報》, 4, 1980.
- 戴璉璋, 「朱子和 退溪의 窮理思想」, 《退溪學報》26, 1980.6.

- 宋 晞, 「李退溪의 史學修學」, 臺北, 《史學彙刊》10, 1980.
- 金樂熙(韓國留學生), 《李退溪與李栗谷政治思想淵源之比較研究》, 臺灣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1980.
- 陳立夫, 「退溪先生의 高風亮節」, 《退溪學研究論攷提要》, 退溪學研究院, 1981.
- 陳榮捷(在美學者), 「退溪의 朱子理解」, 《退溪學報》32, 1981.
- 周 何, 「李退溪의 群經意識」, 《退溪學報》32, 1981.
- 戴璉璋, 「當然之理와 實然之理」—退溪理學의 省察, 《退溪學報》33, 1982.
- 謝一民, 「周蔭溪의 太極圖說과 退溪學」, 《退溪學報》34, 1982.
- 杜維明(在美學者), 「朱熹의 理哲學에 대한 退溪의 獨創的 解析」, 《退溪哲學》35, 1982.
- 何佑森, 「近3百年以來 朱子學의 反對學派를 통해서 본 朱子學과 退溪學의 未來發展」, 《退溪學報》35, 1982.
- 王 甦, 「退溪의 憂患哲學」, 《退溪學報》35, 1982.
- 杜維明, 「李退溪의 知的自我定義의 한 考察」, 《退溪學報》40, 1983.
- 周 何, 「李退溪對文公家禮之運用」, 《退溪學報》42, 1984.
- 王 甦, 「退溪詩의 風格」, 《退溪學報》42, 1984.
- 王 甦, 「退溪先生과 梅花精神」, 《退溪學報》43, 1984.
- 周 何, 「論退溪之出處」, 《退溪學報》46, 1985.
- 王 甦, 「退溪九曲權歌析論」, 《退溪學報》46, 1985.
- 戴璉璋, 「理氣關係與道德實踐, 一退溪實踐論의 省察」, 《退溪學報》47, 1985.
- 傅偉勳(在美學者), 「朱子學繼承者로서의 退溪哲學의 獨創性」(漢文), 《退溪學報》49, 1986.
- 戴璉璋, 「退溪自省錄研究」, 《退溪學報》51, 1986.
- 王 甦, 「李退溪의 心路歷程」, 《退溪學報》52, 1986.
- 成中英(在美學者), 「A New Interpretation of Yi Toegyes Four—Seven Theory of Mencius and Chu—Hsi」, 《退溪學報》52, 1986.
- 王 甦, 「退溪의 文學觀」, 《退溪學報》
- 王 甦, 「退溪의 醉夢詩」, 《退溪學報》56, 1987.
- 蔡仁厚, 「李退溪辨知行合一之疏導」, 《退溪學報》56, 1987.

지금까지 퇴계학연구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약 30명 정도이고 논문의 편수는 필자의 計量으로는 총 56편으로 집계된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分類 頻度	哲 學	詩 學	朱子比較	研究方法	禮 學	史 學	生 涯	現代的 意 義
(N/56)	23	10	7	5	2	3	2	4

위의 <표>에서와 같이 대만학자의 주된 관심은 「哲・文・史」의 전통적인 학문범위이고 이것은 퇴계학을 이해하는데 정당한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대륙중국학자들과의 관심의 지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대만・퇴계학회>의 연구인원은 약 50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84년 이후 대륙학자들이 참가하면서부터 퇴계학연구의 주류는 대륙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짙다. 현재 퇴계학회는 淡江大學의 王甦교수가 臺灣支部長을 맡고 있으나 本院인 退溪學研究院과의 형식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王甦교수는 제1회 퇴계학술상을 수상하였으나 그 뒤로 대만학자의 수상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만학자로서 퇴계학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고 있는 분으로는 周何, 王甦, 蔡茂松, 黃錦鉉, 戴璉璋 교수 등이 있고 在美學者로서는 陳榮捷, 杜維明, 成中英 교수 등이 저명한 분이다. 그간에 발표된 著述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3종을 들 수 있겠다.

- 臺灣師大, 《近世儒學與退溪學》, 臺北, 학해출판사, 1979.(국판 405쪽)
- 王甦, 《退溪詩學》(이장우 교수 역), 퇴계학연구원, 1981.(국판 254쪽)
- 蔡茂松, 《退溪・栗谷哲學의 比較研究》, 成大出版部, 1985.(국판 234쪽)

앞으로 兩岸 관계의 진전에 따라 臺灣과 中國 학자들의 퇴계학연구의 참여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학>은 그들의 공통적인 학문적 관심사이고 또 정치색을 배제한 유일한 국제학술행사이기 때문이다. '84년 台・中 學者들이 퇴계학회 석상에서 처음 조우한 이래, 그들은 곧바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志同道合>하며 유쾌하게 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퇴계학연구원과 국제퇴계학회는 지금까지의 對中國 편향의 시각에서 대만의 퇴계학회지회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옛 친구를 소홀히 대한다면, <새 친구> 또한 우리를 미덥지 못한 <朋友>로 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많은 대만 유학생들의 전공영역이 「文學」쪽으로 편중화되고 있는 현상 또한 극복되어 퇴계학을 포함한 한국유학전공의 유학생과 그 쪽에서의 한국유학 강좌개설이 요구된다.

3. 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⁹⁾

<퇴계학의 북경 입성>

퇴계학이 북경에 상륙하는 데는 여러 곡절이 있었다. 84년 서독의 함부르크대학에서 열

9) 琿지와 李卓佑, 申龜鉉 교수는 《中國學術紀行》을 大邱日報에 全紙 9회로 연재한 바 있다.(1989.12~1990.2). 이곳에서는 琿지가 집필한 <北京에서의 退溪學會議>외 <中國-의 退溪學>을 拔萃하여 실음으로써 보다 現實感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한다.

린 제7차 퇴계학국제회의로부터 5년간, 洋의 동서로 교섭하기 수만리를 돌아 제11차 퇴계학 국제회의가 北京人民大學 주최로 열리게 된 것이다.

5년 전 북경인민대학의 張立文 교수가 단신으로 함부르크대회에 참석한 일은 韓中學術交涉史에 새로운 기원을 긋는 일이었으며 85년 일본 筑波大學에서의 8차대회에서는 20여명, 이듬해 홍콩 中文大學 주최의 9차 회의에는 30여명, 그리고 88년 우리나라 精神文化研究院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때마침 「올림픽기념 학술행사」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역시 20여명의 중국학자들이 내한하였다.

儒學의 淵源地인 中國에 「퇴계학」을 역수출하기 위하여 퇴계학연구원의 이사장이던 春谷의 헌신적인 성력이 원동력이었으나 北京大會를 눈 앞에 두고 그 분이 長逝하였으므로 북경대회의 開幕典禮에는 만당한 동서의 학자들이 기립하여 고인의 업적을 추모하였다.

유학은 자존심이 강한 中華文化의 뼈대이고 정신적 기반이다. 콘스탄티노프라는 독일 학자가 쓴 《毛澤東思想批判》에 의하면, 모택동 자신이 「국제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大漢愛國主義者이며 패권주의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금의 鄧小平시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中華主義는 변치 않는 본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朱子의 충실한 학도로 인정하는 퇴계를 그것도 「學」자를 붙여가면서, 국가의 고급 당관료양성의 본산인 人民大學에서 주최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나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있는 학자들(黨僚學者)에게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퇴계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하여 그들이 敬服하였으리라는 생각은 ‘나 이브’한 것이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퇴계 역시 「한중관계」의 ‘고급스러운 평풍(兵兵)’이라는 것이다. 70년대초에 이루어진 中美關係改善은 이른바 ‘키신저 密室外交’로 기운이 트이고 평풍으로 개막되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평풍’으로 주고 받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그러한 ‘저급의 놀이’로써는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韓中精神文化의 공동기반인 儒學이 가장 좋은 ‘놀잇감’인데, 한국 유학의 絶頂인 「退溪學」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學問外交의 <놀이>가 아닌가? 더구나 그들은 북한을 의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몇 안되는 대만송인의 대사교환국인 마당에서도 퇴계학의 북경유치는 가능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보기에는 퇴계학의 학문적 가치 자체로도 매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혁명기간은 그대로 문화말살기간이었다. 이러한 <암흑기>를 청산하려는 것이 鄧小平이었고 이에 그는 국제적 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상성(紅)에 충실하면서도 전문성(專門性)을 겸비한(又紅又專)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퇴계의 「敬의 哲學」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內修의인 수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학자들은 퇴계의 「敬」을 산업과 기술의 변증법적인 止揚으로서의 실천윤리로 해석하는 것 같다. 헤겔류의 정신현상학이나 마

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의 양면을 겸한 제3의 변증법적 사유체계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퇴계철학 역시 모택동의 「실천론」에 들어가면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실증하고 발전시킨다」는 이론이 되는 듯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黑猫白猫論) 鄧小平의 實事求是精神은 퇴계학도 그들의 철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게 된다.

北京 人民大學校長(총장) 袁寶華는 開式辭에서 “퇴계는 조선의 유명한 朱子學大師이고 주자학의 발전을 창도하였으며, 마침내 조선이 「禮義之邦」이 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현대사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같은 정신문화를 상호 교류시키는 일이 퇴계학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론부분에서 朱子가 陸象山과의 鵝湖之會를 한 다음에 육상산 형제에게 준 시구를 인용하였다.

「옛 학문은 더욱 깊이 생각하고 (舊學商量加邃密)
새 지식은 더욱 깊게 배양하라」 (新知培養轉深沈)

회의에 참석한 중국측 학자 가운데는 蒙培元, 張立文, 辛冠潔 등이 다년간 퇴계학회에 참석한 인물이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학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백여명의 학자들에게 北京 人民大學의 張立文 교수가 主編한 《退溪書節要》라는 大著를 기증한 사실이다. 4백수십년 전에 퇴계가 《朱子書節要》를 편간하여 성리학의 진수를 전수시키고 中國과 日本유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張교수의 《退溪書節要》는 그 학적인 反本이며 回謝이고 韓中學術史의 한 章을 劃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張교수의 誠力은 과연 중국의 「月川 趙穆」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때마침 北京 人民大學의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周月琴의 「李退溪人格教育哲學(張立文 교수 지도)」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이었다.

<중국 속의 퇴계학>

중국 학술계에 퇴계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韓末의 영남 유림들이 山東省 曲阜로 가서 孔廟를 참배하기 시작하고 나서이다.

1913년에 韓溪 李承熙는 방명지인 길림성에서 북경으로 가서 당시 중국 사상계의 거두인 康有爲의 弟子 陳煥章, 李文治, 薛正清 등과 회동하고 「孔敎會」지부를 東三省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북경을 거쳐 天津, 黃河를 건너 曲阜에 당도하여 衍聖公 孔令怡와 少師 孔祥霖 부자의 환대를 받고 공자 사당을 참배하였다. 이 때 韓溪는 그 부친인 寒洲 李震相 선생의 저서 《春秋樂傳》·《理學綜要》·《四禮輯要》등을 기증하였는데 이 가운데 《理學綜要》는 퇴계사상이 중심내용이 되는 책이다. 그 뒤로 陶庵 丁敦燮, 西洲 金思鎮 등이

한계와 연락하면서 만주로 망명하고 곡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眞菴 李炳憲은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 康有爲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孔子敎運動의 선구자가 되었다.

《퇴계집》이 중국으로 들어간 來歷은 陶庵 丁敦燮이 곡부에 갈 때 그의 先祖 문집인 《愚潭集》과 함께 孔府에 獻呈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퇴계집》가운데 <聖學十圖>가 中國人士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陶庵은 東亭 李炳鎬·俛字 郭鍾錫에게 사사한 분으로 1915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德興堡로 가서 韓溪를 찾아뵙고 곡부로 가서 謁廟하였는데 이때 지니고 간 것이 <聖學十圖>등 《퇴계집》이다. 이를 본 중국의 학자들은 크게 찬탄하였으며 尙德學院에서는 1923년에 이것을 병풍으로 만들어 학교건축비에 충당코자 하였다. 이 병풍에 康有爲의 제자이며 戊戌變法운동의 주동 인물인 梁啓超가 贊詩跋文을 하고 民國의 大總統이던 黎元洪이 祝詩를 썼다. 이러한 사실은 곧 中原天地에 환전되었고 東方退溪의 聲價가 四海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陶山書院에서는 公會를 열고 東田潛士 李中均이 지은 賀辭를 발송하는 한편 《退溪集》을 다시 孔府와 北京大學 도서관에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60년 뒤, 퇴계학이 재차 중국학계에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되다시피 되었다. 문화혁명 10여년간 학자의 대부분이 투옥되거나 下放되었으며 중국학술계의 침체는 한국·일본·대만에 비하여 20년의 낙차를 가져왔다고 자평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세계로 문을 열면서 안으로는 「孔子基金會」를 설립하여 마르크스·레닌철학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中華哲學의 이념을 정립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제퇴계학회와의 유대를 다지면서 동아시아사상의 재합성(齊合性)을 고취하려고 한다.

제3회 퇴계학술상 수상자이면서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장을 지낸 辛冠潔교수에 따르면 퇴계철학은 주자학을 능가하는 실천윤리를 지녔으며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의 철학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동향>

北京人民大學 張立文 교수가 1984년 9월에 함부르크大學에서 개최된 제7차 퇴계학회의에서 「朱熹與李滉의易學思想比較研究」를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학자의 퇴계학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 張立文, 「朱熹與李滉의易學思想比較研究」, 《退溪學報》 43, 1984.6.
- 張立文, 「李退溪哲學의 論理構造 探析」, 《退溪學報》 45, 1985.3.
- 崔龍水, 「李退溪哲學의 方法論」, 《退溪學報》 49, 1986. 3.
- 趙宗正, 「試論退溪學的特點」, 《退溪學報》 49, 1986.3.
- 徐遠和, 「Lee Tui-Xi and his Essential Excerpts from Zhu Zis Work」, 《退溪學報》 51, 1986.6.

- 蒙培元,「朱了學的演變和李退溪哲學」,《退溪學報》51, 1986.6.
- 潘富恩,「論李退溪의 教育觀」,《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楊憲邦,「論退溪學的理學體用觀」,《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徐遠和,「李退溪與朱子 古節要」,《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李錦全,「論李退溪의 天人合一思想」,《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辛冠淑,「論李退溪의 心學思想」,《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張立文,「李退溪의 認識範疇系統論」,《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謝寶森,「李退溪處世之道述評」,《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陳 來,「論李退溪對朱熹哲學的展開及其在理學思想的 地位」,《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高令印,「李退溪道德論理思想的 特色」,《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田博元,「李退溪의 經世思想」,《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丁寶蘭,「論李退溪人性論的特色」,《李退溪哲學의 歷史的位置》(筑波大 第8回大會論文集), 東京, 東洋書房, 1986.12.
- 張立文,「李退溪理動論探索」,《退溪學報》54, 1987.7
- 辛冠淑,「論儒家的聖人觀和李退溪爲聖之道」,《退溪學報》55, 1987.10.
- 高令印,「李退溪의 心學和眞西山의 心經」,《退溪學報》55, 1987.10.
- 楊憲邦,「李退溪和朱熹性情觀的異同」,《退溪學報》56, 1987.12.
- 崔龍水,「李滉與朱熹的方法之比較」,《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簡博賢,「易學象數述微」,《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饒宗頤,「退溪四端七情分理氣出關義」,《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李錦全,「正己正人・成人成物」,《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丁寶蘭,「朱李之學和社會現代化」,《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徐遠和,「李退溪與心經」,《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蒙培元,「論李退溪의 情感哲學」,《退溪學報》58—59, 1988.9.(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張立文,「朱子와 退・栗의 道心人心說批評」,《退溪學報》60, 1988.12.

- 步近智, 「退溪學과 明代朱子」, 《退溪學報》 60, 1988.12.
- 蒙培元, 「李退溪의 心性論概述」, 《退溪學報》 62, 1989.6.
- 徐遠和, 「李退溪의 直覺觀에 대한 略論」, 《退溪學報》 62, 1989.6.

1989년 제11차 대회는 北京人民大學에서 개최됨으로써 退溪學의 思想的인 淵源地에서 張岱年교수를 비롯하여 18명의 학자들이 퇴계학논문을 발표하였다.

李退溪의理氣論	葛榮晉
試論李·奇四七理氣之辯	馬振鐸
李退溪理氣觀分析	崔龍水
略論李退溪의格物論	步近智
李退溪論格物致知的認識論意義	馬增銓
李退溪關於心的闡釋學	蒙培元
退溪論士	潘富恩
退溪先生的重民思想及其歷史貢獻	喬長路
略論退溪學的形成與發展	徐遠和
退溪學在儒學中的地位	楊憲邦
論朝鮮新儒學論理思想的特色	
及其在新儒學論理思想史上的地位	李洪淳
略論朝鮮性理學與李退溪	朱七星
由閩學到退溪學	高令印
朱熹與退溪理之比較	李甦平
朱子與退溪價值觀之比較	張立文
儒家人生哲學簡論	方立天
論儒學現代轉化的必要性和可能性	樓宇烈
儒學與現代化	張岱年

1990년 모스크바(과학원)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辛冠潔 교수를 비롯하여 張立文, 蒙培元, 樓宇烈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朝鮮族學者 李洪淳, 黃有福 교수 역시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학자의 퇴계학연구 논문은 총 55편이고 그 잠정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哲學一般	比較	研究方法	論理	教育	社會	現代意義	其他
23	14	4	2	2	2	2	6

- ① 臺灣의 文學(10), 禮學(2), 生涯(2), 史學(3)이 빠지고 그 대신 論理, 敎育, 社會 방면이 追加되었다.
- ② 比較研究는 臺灣이 주로 朱子比較인데 비하여 中國에서는 보다 폭넓은 性理學一般이 特徵이다.

그리고 중국학자들의 퇴계학연구에 대한 열의는 「퇴계학술상」의 시상제도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상금(본상 1만달라, 학술상 5천달라)의 규모 면으로 보면 중국학자의 수년간의 연봉에 해당되기 때문에 研究誘因策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¹⁰⁾ 지금까지 4회의 시상을 거치는 동안 총 13명의 수상자 가운데 중국학자가 5명이고 대만학자가 1명이다.

4. 맺는 말

중국학자들은 「學退溪」의 사회과학적 관심을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첫째로, 퇴계학과 같은 유교적자본주의 관념철학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

둘째로, 퇴계의 「敬의 철학」이 어떻게 하는 자본주의 퇴폐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셋째로, 중국의 현대유학의 부흥과 퇴계학의 연계로 새로운 시대철학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이상과 같은 <문제>는 실상 그들이 퇴계학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한 결과인지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퇴계학이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유교도덕주의와 유교자본주의 어느 면에 서고 성공한 나라가 못된다. 그러나 우리가 퇴계학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세계의 지성과 더불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퇴계학이 이 시대의 「救援의 哲學」이라거나 인류를 대표하는 예지의 샘이라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백여년 전에 동방의 한 시골에서 70년간 참 사람됨의 길을 걷고 또 참 앎의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성실성이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는

10) 역대퇴계학술상 수상자(*표는 중국계 학자)

'85년 제1회 丁淳睦(韓)・高橋 進(日)・王蘇(臺灣)*

'87년 제2회 全斗河(韓)・張立文(中)*・M. Kalton(美)

'89년 제3회 劉明鍾(韓)・辛冠潔(中)*・蒙培元(中)*

'91년 제4회 尹絲亭(韓)・權五鳳(韓)・步近智(中)*・高令印(中)*

소박한 ‘멧세지’이고 이것을 우리는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의 퇴계학연구의 기반은 상당할 정도로 조성되었다, 중국에서의 《退溪書節要》(總論/政治論/心性論/理氣論/倫理論/教育論)의 보급은 더많은 연구인원을 배출할 것이며 《白話文·退溪全書》가 四川大學의 賈順先 교수의 主導로 완결단계에 있으므로 대학생을 위시한 많은 청년퇴계학도의 출현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국제퇴계학회 중국지부의 결성·유학생의 교류·중국학회와의 교류(특히 孔子基金會, 朱子學會, 朱熹研究中心 등)등의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최근 李秀雄교수(建國大)의 《朱熹與李退溪詩比較研究》라는 저서가 北京大學出版社에서 出刊('91.2)되었는데, 이 또한 퇴계학학술교류에 기억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